

종과 장님

강은교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종을 친다. 자그마한 두 개의 종이 부딪히며 일어나는 음(音)은 아름답게 몸을 떨며 우리집 부엌의 작은 공간 속으로 흩어져 나간다. 마치 그 떨림의 선(線)을 밟고 무엇인가가 또는 누구인가가 가만히 오는 것 같이. 나는 다시 한 번 종을 친다. 아름답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으며 그 울림의 선을 따라 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구인가를 맞이한다. 작은 집의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것, 마지막 떨림은 공기를 자그맣게 흩어놓으며 천천히 사라진다. 나는 그 소리를 붙든다. 소리는 내 손바닥 속으로 들어온다. 마치 녹는 눈을 손으로 받아들 듯이, 그 소리의 잔여(殘

餘)는 내 손바닥 속에서 녹아간다. 천천히, 천천히.

무슨 종이냐 하면, 지난 해 어떤 문학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던 끝에 “나는 종이 몇 개가 있다. 어쩌다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10불 이하의, 그 나라의 민속종을 사온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종’은 내게 없다. 경주에 사는 학생에게 모형 에밀레 종을 하나 구해 오라고 하였던니 너무 비싸고 큰 것만 있다는 대답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멕시코에서 사 온 8불짜리, 손잡이에 수탉이 있는 조그만 종을 칠 수밖에 없다. 그거라도 새벽에 일어나 치고 있으면 내 눈이 뜨이는 것 같다. 내 눈에 이어 나의 잠든 의식

이 깨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청중 중의 한 분(노의사였다)이 자기가 ‘한국의 종’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런데 며칠 후 노의사에게서 정말 전화가 왔다. “88올림픽 때 ‘한국의 종’을 외국인에게 파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 사방에 알아보았더니 좋은 종이 부산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놓았으니, ○○○에 가서서 찾아 가시라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웠으나, 그 가게에서도 전화가 오고 해서 그 며칠 후인가 잠을 내어 그 가게로 찾아갔다. 마음이 설레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멕시코의 종보다 좋은 종일까…….

가게 점원의 안내에 따라 가게를 찾으니, 과연 나를 위해 사놓은 종이 있었다. 커다란 상자에 넣어져서, 그것도 두 개가. 마침 그곳은 불교에 관한 책들을 파는 ‘서적원’이어서 불교서적들이 많이 있었다. 몇 시간인가를 거기서 책들을 고르느라 보낸 다음 나는 종과 함께 책을 싸들고 돌아왔다.

종은 너무 아름다웠다. 멕시코의 종에 비하면 컷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작은 모형임에도 멕시코의 종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은은하게 울리는, 에밀레 종 같은 종, 역시 종은 ‘한국의 종’이었다. 더구나 두 개였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종

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서로 부딪히게 하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나의 아침의 의식(儀式)은 이제 바뀌어졌다. 멕시코의 수탉 손잡이 종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의 한국 종을 부딪히는 것으로 나는 새벽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울들어 피어난 난꽃 다섯 송이에 스프레이를 해 주고 브람스를 튼 다음, 수평선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으로.

종소리를 듣고 해를 바라보며 나는 가만히 나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묻는다. 종소리의 떨림과 함께 나는 의식(意識)이 깨어나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럴 때면 연암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화담(花潭) 선생이 길을 가다가 집을 잃고 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화담 선생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는가?”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저는 다섯 살에 눈이 멀어 이제 스무 해나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지 만물이 맑고 밝게 보이는데 기뻐 돌아가려 하니, 골목길은 갈림도 많고 대문들은 서로 갈아 제 집을 통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 눈을 도로 감아라. 그러면 네 집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 사람은 눈을 도로 감고 지팡이를 두드려 걸음을 밟고 집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연암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한 덧붙여 놓고 있

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깔과 형상이 전도되고 슬픔과 기쁨이 작용이 되어 망상이 된 것이지요.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음을 밟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수를 지키는 관건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答齋 2)

하긴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을지 모른다. 어떻게 다섯 살부터 눈이 먼 사람이 갑자기 눈이 뜨였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며 비유이다. 우리는 눈뜬 장님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매일의 세계 또는 앎의-지식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자기의 ‘집’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의식이 깨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또 나아갈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년이 눈을 감는 순간은 청년의 의식이 깨이는 순간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연암이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망상을 버린 ‘깨임의 순간’, …… 그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집이 인생의 집이든 또는 앎의-지식의 집이든.

나는 다시 종을 친다. 그리고 그날 종과 함께 나에게 온 ‘불교 설화 대사전’을 펼친다. 거기에는 무수한 비유와 설화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 중 하나가 특히 내 눈을 끈다.

어떤 나라의 궁전 뜰에 과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는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여 얼마 안 있으면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았다. 왕은 그 나무 아래에서 한 신하를 만나,

“앞으로 이 나무에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릴 텐데 그대는 그것을 먹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다. 신하는 왕에게

“이 나무는 너무 높고 커서 먹고 싶어도 열매를 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이 안으로 들어간 뒤 신하는 열매를 따 먹기 쉽도록 나무를 베어 버렸다. 열매가 맺히기는 고사하고 나무가 말라 죽게 되자 그는 다시 나무를 세워놓았지만 헛수고였다.

앎의-지식의 세계에서도 이런 비유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직 채 익지도 않은 지식의 열매를 마구 따들이는 모양을 생각하면, 그것도 시인 신동엽의 표현을 빌면 외국, 특히 서구의 문화수입상이 되어 또는 지식의 수입관이 되어 우리의 몸에 맞지도 않는 지식의 옷들을 마구 입어대는 것을 생각하면, …… 열매를 쉽게 따기 위해서 키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신하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나는 비유들을 읽는 김에 장자(莊子)를 다시 펴든다. 거기에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

한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두려워 하고 발자취를 싫어하여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달아났는데, 발걸음이 잦을수록 발걸음이 많아지

며 달아나는 것이 빨라질수록 그림자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자기 걸음이 아직 더딘 때문이라 생각하고 쉬지 않고 질주하여 결국 힘이 다해 죽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는 그늘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고 멈추어 있으면 발자취가 사라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莊子, 雜篇)

그렇다. 이제 앞에 펼쳐진 해에는 쓸데없는 그림자 같은 지식들을 버리고, 그러한 그림자의 욕망도 버리고, 그림자의 집착도 버리고, 달콤한 열매를 위하여 나무를 베어버리는 어리석음도 버리고…… 아, 버리고,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종을 치며 나의 집을, 진정한 삶의 세계가 있는 집을 찾아가리라. 거기 진정한

삶의 세계는 나를 반가이 맞아주리라. 아름다운 종소리의 울림을 던지며. ■

강은교/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후 한국문학 작가상(1975), 현대문학상(1992) 등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시집 『풀잎』, 『빈 자일기』, 『소리집』,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어느 별에서의 하루』 등이 있고, 산문집 『추억제』, 『그물 사이로』, 『누가 풀잎으로 다시 눈뜨랴』, 『허무수침』 등이 있으며, 장편동화 『숲의 시인 하늘이』, 역서 『E. Dickson 시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